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장헬렌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5:1-11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사람을 낚는 어부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3월 17일	3월 24일(종려주일)
서경열	최은숙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격주)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18) 회당에 더러운 귀신

본문 : 눅4:31-44

인생에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질문의 연속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질문은 상위 질문과 하위 질문으로 나뉩니다. 상위 질문이라든가 근원적인 질문이자 우선순위의 질문을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상위 질문이란 왜 사느냐?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살기로 선택하고, 누군가는 죽기로 선택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살기로 선택하셨다면 그 다음 질문은 어떻게 살거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하고 소유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대부분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종교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입니다. 불교의 큰 스승이었던 법장 스님은 무소유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는 소유의 삶을 포기하고 존재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평생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도를 닦았는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라는 답을 남기셨습니다. 그 의미는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더라"라는 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이야 무리 도를 닦아서 선택하려고 하고 신이 되려고 노력해도 안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고린도전서13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주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인가 무소유의 삶을 살겠다는 것도 결국은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자기 의기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그 선한 행위조차 자기 의로 바뀔 버립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근본적인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기심과 욕망으로 채워진 죄만 존재합니다.

그 마음 죄는 우리 안에 악한 영, 어둠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귀신들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당에서 귀신들린 자를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회당안에 귀신들린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귀신들린자 세상의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가장한 천사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귀신을 물리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뿐이요, 말씀의 권위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귀신축사의 현장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 내 안에 모든 악한영들을 내어 쫓으시기를 소원합니다.